

도내 건설 경기 침체... 올 수주액 전년보다 360억 줄어

올림픽 이후 공사 발주량 급감

올 1~9월 강원도 종합건설업체들의 수주액 규모가 1년 전보다 360억 3,969만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대한건설협회 강원도회에 따르면 올 1월부터 9월까지 도내 종합건설업체들의 공공부문 전체 수주액은 9,819억9,071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같은 기간 수주액인 1조

180억3,040만원에 비해 3.54%가량 감소된 수치다.

다만 지난달 도내 수주액은 전년 동월에 비해 117.81%가량 늘어난 1,396억2,613만원으로 집계돼 '반짝 회복세'를 보였다. 대규모 도로·건축공사가 발주된 데 따른 일시적인 현상이라는 분석이다.

대한건설협회 도회는 누적 수주액 규모 감소 원인으로 평창동계올림픽

이후 공사 발주물량이 크게 줄어든 점을 꼽았다.

도회 관계자는 "누적 수주액 규모가 전년보다 줄어든 점을 감안하면 여전히 공사발주량 급감에 따른 일감 부족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것"이라며 "균형적인 공사 수주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꾸준한 건설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윤종현기자 jjong@kwnews.co.kr

다음 주 도내 171억 상당 시설공사 분야 개찰 진행

다음 주 도내에서 171억원 상당의 시설공사 분야 개찰이 진행된다.

18일 강원지방조달청의 주간 입찰 동향에 따르면 21일부터 25일까지 닷새간 도내에 예정된 시설공사 분야 개찰건은 총 10건으로 전체 추정가격은 171억3,508만원이다. 세부적으로 22일 대법원의 '춘천지방법원 속 초지원청사 신축 제1차 전기공사(21억5,228만원)'건과 '춘천지방법원 속 초지원청사 신축 제1차 통신공사(12억4,411만원)'건이 개찰된다. 같은 날 한국수산자원공단 동해본부의 '2019년 동해바다숲 양양군 전진1리 다층식피라미드 어초 제작 설치(2억8,212만원)'건도 개찰된다.

24일에는 강원대가 '천지관 1층 동아리실 외 1개동 석면 해체 및 제거 공사'건을 추정가격 2억9,674만원으로 개찰에 나선다. 이어 25일 원주시 상하수도사업소가 '원주시 구곡·행구·섭재 하수관로 정비사업(토목·기계·건축)'건을 이 시기 최대 추정가격인 122억1,989만원에 개찰을 예고했다.

윤종현기자 jjong@

강원일보X네이버 모바일 뉴스 채널 입장을 축하합니다

강원일보 창간 74주년을 축하합니다

건설·건축박람회

강원 **eco+** 홈페어2019

GANGWON ECO HOME FAIR

강원도에서 유일한 전문 전시회, 정보 교류의 장으로 놀러 오세요!

도내에서 생산되는 건설·건축 우수자재 홍보 및 판로확대

2019. 11. 15(금)~11. 17(일) - 11. 15(금) 14:00 개장
- 11. 17(일) 15:00 조기폐장

강원도 춘천시 봄내체육관 (구 캠프페이지 내)

전시품목

- ◆건축자재분야
- ◆가구 및 인테리어분야
- ◆조경 및 공공시설분야
- ◆욕실 및 주방 분야
- ◆냉·난방기기 분야
- ◆홀 인테리어 소품 등 일상에서 필요로 하는 물품에 대한 현장 할인판매
- ◆창호자재분야
- ◆조명 및 전기시설분야
- ◆건설장비 및 보호구 분야
- ◆건설 신기술 분야

부대 행사

- ◆매일 2회 경품추첨
경품이 팡팡 - 황금을 잡아라 외 다수
추첨일 : 15일 14시 30분, 16시
16일 12시 30분, 16시
17일 12시 30분, 14시 30분
- ◆강원에코홈페어2019 바로 알기 스탬프 랠리
- 추억 만들기 캐리커처
- 발이 편한 힐링으로 초대 발 마사지 서비스



■도내 건축 건설 업체 부스운영 접수처

▶홈페이지 www.kwnews.co.kr ▶E-mail ayh@kwnews.co.kr ▶운영사무국 ☎(033)258-1810~2, F. 258-1815

■주최 : 강원일보사, 강원건설단체연합회 ■후원 : 강원도, 춘천시 외 17개 시, 군

※이벤트 : 개막일 저녁 17개 시군 건설 건축
지적 담당공무원과 업체 대표들의 교류 장 마련